

공현대축일 · 주님의 세례 축일 감사성찬례

집전: 최바우로 신부 설교: 최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스테반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155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6쪽 집 전 자
†죄의고백 6쪽 다 함 께
†영광송 93쪽(B곡)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집 전 자
영원하신 성부 하느님,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시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성자 예수를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을 보내시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셨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를 하느님의 빛나는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1독서 창세 1:1-5 말 은 이
성 시 시편 29편 다 함 께



- 1 하느님을 모시는 자들아, 주님께 돌려 | 드려 | 라.
○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 돌려 | 드려 | 라.
 - 2 그 이름이 지니는 영광 주님께 돌려 | 드려 | 라.
○ 거룩한 빛 두르신 주님께 머리를 | 조아 | 려- | 라.
 - 3 주님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 퍼진 | 다.
○ 영광의 하느님께서 천동소리로 | 말씀 | 하신 | 다.
 - 4 주께서 바닷물 위에 나타나신다. 그 목소리는 힘 | 차시 | 고
○ 그 목소리는 | 장엄 | 하시 | 다.
 - 5 주께서 거센 물결 위에 옥좌를 잡 | 으시 | 고
○ 영원히 왕위를 | 차지 | 하셨 | 다.
 - 6 주님의 백성들아, 그에게서 새 힘을 | 얻- | 고
○ 복을 받아 평화를 | 누리 | 어- | 라.
- 영광이 | 성부 | 와 ○ 성 | 자와 | 성령 | 께
처음과 같이 | 지금 | 도 ○ 그리고 | 영원 | 히, | 아- | 멘

2독서 사도 19:1-7 말 은 이
†복음환호송 말 은 이
†복음서 마르 1:4-11 말 은 이

설교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22쪽 다 함 께
†봉헌성가 514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3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101쪽(B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8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9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104쪽(B곡) 다 함 께
성체성가 153장 다 함 께
†영성체후기도 31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말씀과 성사의 빛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세상 끝 날까지 주님을 알고 경배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32쪽 집 전 자
†파송성가 152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1월 7일)	다음 주일(1월 14일)
1독서	조장은	윤희진
2독서	조성산	유정훈
대 도	정국진	김준우
다음주일 전례독서	사무상 3:1-20 시편 139 1고린 6:12-20 요한 1:43-51	
성 가	248 346 444 402	
복 사	이동우, 이서현	보혈조력 정요셉
다음주간 교회청소	<7조> 청년회	

(1997-2023 / 교회설립 26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4년 1월 7일 공현대축일 · 주님의 세례 축일 · 나해 · 백색

제28-1호

공현과 세례, 세상에 드러난 하느님의 은총



성탄으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 입이다. 하느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아기는 삶의 모든 순간, 죽음까지도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聖事)로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신 사건을 공현(公現)으로 기념합니다. 공현은 빛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 하느님의 신성이 드러남을 뜻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고,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보이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일. 이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느님이심이 알려지는 공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대축일로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세상이 그를 통해 하느님을 보게 되었음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소명이 주님의 세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들은 요한이 소리 높여 외치던 그분을 드디어 마주했습니다. '나보다 앞서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하느님의 나라를 열어 가실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정체성)로, 하느님의 일(사명)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하느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께 들려왔던 하느님의 말씀은 오늘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세례 받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사랑 없이 메말라 날카로운 가시만 남은 현실에서 우리가 봉헌할 것은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살아내는 우리의 정성입니다. 사명을 살아내는 신앙인의 삶이 이 세상에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며 다시 생명을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 협동사제 최수재(토마스) 신부
신자회장 최용옥(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아나)

복되고 아름다운 봉헌과 헌금 서약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성찬례 예물기도)

성찬례의 봉헌 때 드리는 이 기원은 신앙생활의 태도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감사의 생활과 선교의 실천을 봉사와 재물의 봉헌으로 표현합니다. 소득을 얻기가 어려운 만큼, 봉헌의 결단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정직한 수고와 땀의 결과를 봉헌하는 일은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입니다.

헌금 봉헌이 복된 까닭은 봉헌금이 **하느님 나라의 확장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봉헌금을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회복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봉헌은 인간과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하느님의 꿈에 참여하겠다는 신앙인의 의지이며 의무입니다.

헌금 봉헌이 아름다운 까닭은 헌금에 담긴 수고의 땀방울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싸매시며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길이 되어 주님의 고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거두어 땀방울을 함께 나누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헌금 봉헌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봉헌의 약속은 삶의 제일 가치가 세상 재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약속하고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유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을 선택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물질을 선택하면 하느님을 버리게 되지만, 하느님을 선택하면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것들로 마음과 생활의 풍요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봉헌 서약(십일조, 월정헌금, 주정헌금, 기타 서약헌금)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출발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을 진심과 성심으로 바치기로 약속할 때, 하느님은 기뻐하시며, 이웃은 큰 혜택을 얻습니다. 지금 2024년도 봉헌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가 봉헌 서약에 참여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 11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연중절기 전례 안내 (다음주일부터)

전례색: 녹색 / 전례곡: C곡 / 송가: 영광송

◆ 공현대축일 - 주님의 세례 축일 (오늘)

1월 6일 공현대축일을 1월 7일(주일) 주님의 세례 축일로 옮겨 함께 지킵니다. 공현과 주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사실을 세상에 널리 드러낸 구원의 사건입니다.

◆ 하나의 교회 하나 된 120일 기도 운동

기도 책자와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알림

◆ 2024년 1월 교회위원회

오늘(7일) 오후 1시 20분 / 어린이 예배실

◆ 성서통독 문제지 재개

오늘(7일)부터 루가복음으로 이어갑니다.

◆ 산본교회 상호 기도 순서표

서로를 기억하고 축복하는 우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호 기도 순서를 보시며 기도해 주세요.

◆ 십일조(월정헌금) 서약서 봉헌

2024년도 십일조(월정헌금) 서약서를 기도 가운데 작성하여 성찬례 '봉헌' 순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1일 주일까지)

◆ 찬양 예배 (매월 둘째 주일)

1월 14일(주일) 애찬 후에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금 영수증을 헌금꽃이에 비치하였습니다.

◆ 서울교구 어머니연합회 신년 하례회

1월 9일(화) 오전 11시 / 서울주교좌성당

◆ 대림절 성서 필사 노트 제출

대림절 필사노트를 다음주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동우(12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370,000원

김준우/조장은 최용준/백기은

■ 주일헌금 146,000원

김소라 박선희 박종례 백옥경 유군상 이범희 조준행 최미혜 최순덕 한명숙 황선숙

■ 신년 감사헌금 1,210,000원

김운권/홍양금 김은정 류한신/이민녀 유군상 백남진/박선희 유아윤 유아현 유정훈/김승현 이선자/김동준 이윤식 백옥경 이은경/조준행 임광호/최숙진 정국진/이숙영 차준섭/김승숙 최순덕 최용옥/윤희진 허재원

■ 감사 헌금 200,000원

최순덕(성탄 감사) 황선숙(생일) 차준섭/김승숙(범사)

< 성공회 산본교회 봉헌 안내 >

신한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주간 전례독서 (1월 8일 ~ 13일 / 연중 1주간)

	독서	복음
8일(월)	사무상 1:1-8	마르 1:14-20
9일(화)	사무상 1:9-20	마르 1:21-28
10일(수)	사무상 3:1-10, 19-20	마르 1:29-39
11일(목)	사무상 4:1-11	마르 1:40-45
12일(금)	사무상 8:4-7, 10-22	마르 2:1-12
13일(토)	사무상 9:1-4, 17-19 10:1	마르 2:13-17

※ 기도해 주세요 ※

◆ 우리교회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신앙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옥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 새교우(예비 신자) 이요한 전아영